

서 평

세계속에 자라고 있는 韓民族 共同體

— 이자경 저,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조 화 성
<고려대 대학원>

대한제국시기 멕시코이민의 역사와 과정을 학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추적한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지식산업사)가 재미국작가 이자경씨에 의해 출판됐다. 이 책은 작가가 근 10년간 현지조사, 인터뷰, 문헌조사를 통해 성취한 역작으로써 1995년 12월 문화일보 SBS 가 공동 주최한 광복 50돐 기념 '해외한국인기록문화상' 모집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모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멕시코 이민을 떠났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조국애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문제와 민족주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이민사는 여타 지역의 해외동포들의 이민사와 더불어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의 맥락에서 우리의 민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가지는 값진 기록이기도 하다.

1996년 현재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후예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멕시코 이민의 역사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년만 일하면 큰 돈을 벌어 금의 환향할 수 있다는 꿈에 부푼 1,033명의 한인들은 영국선박에 실려 재물포 항구를 떠나 멕시코의 유가탄주의 수도인 메리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25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가 4년여간의 노예 노동에 혹사당하였다. 이민은 일본인 경영의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회사와 유가탄의 에네켄 농장주협회의 대리인 자격인 마이어스가 결탁한 국제이민사기단에 의해 이루어진 명백한 불법이민이었다.

한인들은 농장에서 에네켄의 어저귀(주로 선반로프의 원료)를 따는 노동을 하였는데 새벽 3시~4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중노동에 이들이 받은 월급이라고는 장정의 경우 35전으로 이는 하루치 식료품(25전)을 구입하는 것조차 부족한 액수였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은 “이것이 국가의 죄냐, 사회의 죄냐, 또 나의 죄냐,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

냐 …”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한다. 이들은 4년간의 노예노동이 끝난 뒤에도 조국의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병합되는 사태로 끝내 귀국하지 못하고 다시 에네켄 농장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미국, 쿠바 등지로 흩어져 다시는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자경이 분석은 무엇보다도 당시 멕시코 이민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은 한말의 정치적 부패와 식량공급의 절대부족 현상, 일본제국주의의 해외팽창 요구가 드세던 과정에서 일어난 경제적, 정치적 유민의 성격을 갖는다. 즉 기득권층의 민중수탈과 농민에게 부과된 과중한 각종 조세로 인한 재난, 동북아의 이권쟁탈 전을 벌인 구미 열강 및 일본의 탐욕적인 내정간섭에 의한 복합적인 안팎의 재앙이 한인들의 해외유출을 부추긴 요인이었다. 멕시코 이민은 공개적인 모집광고와 정부 발행의 비자, 현지국가의 입국절차 등 소정의 이민양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민의 성격을 떠나, 당시 계약노동을 금지하던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통한 모집을 한 일종의 사기극으로써 불법성을 지닌다.

이 책의 저자인 이자경이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과정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혼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강한 동족의식을 느끼게 한다. 멕시코 이민의 한인들은 갖은 고생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며 현지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으로서 명성이 높혔으며, 지금까지도 이들의 김치를 담궈 먹을 정도로 민족적 생활상을 이어가려고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초기 멕시코, 한인이민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던 농장에 한인 자치회, 승무학교를 세워 상호 부조의 전통을 유지하고 조국독립에 기여코자 독립군을 양성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글학교를 세워 모국어와 민족의식을 가르쳤고 30년대 이후에는 대한국민회에 조국광복의 자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멕시코의 이민사와 한인이민들의 민족적 운동은 현재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재 멕시코이민의 후예들은 고국방문을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 88올림픽때는 한국의 발전상에 자긍심을 가졌다 고 한다. 멕시코 이민사와 한국에 대한 이민 후예들의 관심은 단지 망향의 한과 뿌리에 대한 열망으로만 볼 수 없다. 이들의 밀바탕에 흐르는 민족의식은 세계적 한민족 민족공동체의 가능성으로서 새로운 민족적 통합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의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국제금융자본을 위시한 자본주의 운동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국수주의로 결파되기도 하였지만, 민족적 통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21세기의 전지구화의 흐름속에서 남북통일과 더불어 해외 한민족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는 20세기초 한인들의 해외이민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함의로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